

평창 스타 한자리에... 100회 동계체전 열전 돌입

쇼트트랙 김아람·곽윤기, 피겨 차준환·최다빈 등 출전
노태강, 개막식 축사서 스포츠 개혁 필요성·방향 제시

올해로 100회를 맞은 전국동계체육대회가 19일 개최식을 시작으로 4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진행된 개최식은 김승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했다.

개회사를 맡은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동계체육대회에서 기량을 쌓은 선수들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며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 펼쳐 목표한 성과를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 차관은 축사를 통해 '스포츠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노 차관은 "지난 100년 거울삼아 새로운 100년 준비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스포츠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엘리트 스포츠도 마찬가지다"라며 "훈련 자체가 자기 성장의 길이여야 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즐거운 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수대표 선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동메달리스트인 김태운(서울시청)과 피겨스케이팅 선수 안소현(신목고)이 맡았다.

1920년 최초의 전국규모 대회였던 조선빙속경기대회를 시작으로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열리던 동계 체육대회는 1957년을 기점으로 정착됐다.

가을에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와 동계체육대회의 회수를 통일하자는 전국체육대회 위원회의 제안이 대한체육회 의사회 의결로 통과되며 1957년 제38회 동계체

육대회가 열렸고, 올해로 100회를 맞았다.

17개 시도에서 3천856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된다.

개회식이 열린 태릉국제스케이팅장(스피드스케이팅)을 비롯해 목동 실내빙상장(쇼트트랙), 태릉 실내빙상장(피겨), 용평리조트(알파인스키), 휘닉스 평창(스노보드) 등 전국 각지에서 종목별로 경기가 펼쳐진다.

컬링과 시범종목인 아이스 클라이밍은 사전 경기로 치러졌고, 아이스하키는 13일부터 강릉하키센터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이번 대회에는 작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활약한 선수들도 대거 출전한다.

평창 대회에서 메달을 따낸 스피드스케이팅의 김민석(성남시청), 차민규(동두천시청), 김보름(강원도청) 등과 쇼트트랙의 김아람·곽윤기(이상 고양시청), 최민정(성남시청) 등 간판선수들이 빙판을 누빈다.

피겨스케이팅의 차준환(휘문고), 김하늘(수리고), 최다빈(고려대)도 경기에 나선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광주·전남은 각각 148명과 211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광주시체육회는 스노보드 김예나(30)와 이정은(26, 이상 광주스키협회)이 이번 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남은 러시아 귀화선수 프롤리나 안나가 바이애슬론 여자 일반부 스프린트 7.5km와 개인경기 15km에 출전해 2관왕을 노리고 있다. /연합뉴스·차아정 기자



김아람 '3위로 준결승전 통과' 19일 오후 목동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여자일반부 쇼트트랙 1500m 준결승전. 김아람(고양시청, 앞에서 세번째)이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K리그도 새 시즌부터
벤치 헤드셋 착용 허용

내달 1일 개막하는 프로축구 K리그 경기에서는 감독과 코치들이 벤치에서 헤드셋을 끼고 벤치 밖과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19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2019 시즌 개막을 앞두고 새 시즌부터 달라지는 K리그 규정을 소개했다.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부터는 소형 전자기기의 벤치 내 반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벤치에 있는 감독 등 코치진은 헤드셋이나 노트북, 태블릿PC를 사용해 벤치 바깥의 코치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

벤치 헤드셋 허용은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먼저 선보인 바 있다.

관중석 등에 앉은 코치나 의무 담당자가 벤치에서 미처 보지 못한 선수들의 상태나 전술 포인트 등을 벤치로 전달해 즉시 감독의 전술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젊은 유망주들의 출전 기회도 늘어난다. K리그1에서는 지난 시즌까지 매 경기 출전선수 명단에 23세 이하 선수를 2명(선발 1명 후보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22세 이하로 한 살 더 어려졌다. /연합뉴스

광주수영대회 초청장 北 전달
이낙연 총리 "화답 기다리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는 7월 광주에서 개막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해 "지난주 스위스 로잔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북한 측에 초청장을 전달했다"며 "북한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19일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에서 "이번 대회에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출전권의 43%가 배정돼 있다. 북한 우수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종환 문화부 장관은 지난 14~15일 로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에서 열린 남북 체육장관회의에서 김일국 북한 체육상에게 광주시청의 북한 선수단 초청 서한을 전달했다.

이 총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5대 국제경기대회에 속한다"며 "이제 우리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5대 국제대회를 모두 치르는 나라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회 개최까지 140여일 동안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며 "광주만이 아니라 정부의 모든 부처가 온 국민과 함께 대회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8월 5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2019 광주 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준비상황과 각 부처 지원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KCC 외국인 선수 킨
프로농구 외국인 최단신

프로농구 전주 KCC의 마크스 킨(24·사진)이 역대 외국인 선수 사상 최단신 선수가 됐다.

킨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신장 측정 결과 171.9cm가 나왔다.

이는 종전 최단신 기록인 이번 시즌 부산 kt 스테판 무디의 176.2cm보다 4.3cm 나 더 작은 키다.

1997년 출범한 프로농구에서 키 175cm가 안 되는 외국인 선수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킨은 지난해 미국프로농구(NBA) 산하 하부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다.

국가대표 경기 휴식기가 끝난 뒤인 3월 1일 서울 SK와 경기부터 출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박성현 '시즌 5승' 도전... 태국서 첫 시즌 시작

혼다 LPGA 타이랜드 내일 개막...유소연·전인지 등 출전

어느새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3년 차에 접어든 박성현(26·사진)이 태국에서 2019시즌을 시작한다.

박성현은 오는 21일부터 나흘간 태국 춘부리 사암 컨트리 클럽 파타야 올드 코스(파72·6천576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혼다 LPGA 타이랜드(총상금 160만 달러)에 출전한다.

이번 시즌 LPGA 투어 네 번째 대회지만, 박성현에게는 첫 대회다. 박성현은 지난 세 번의 대회를 건너뛰고 동계 훈련에 매진했다.

박성현은 "3년 차로 접어든 만큼 이제 좀 더 여유를 갖고 나의 플레이를 지켜가겠다"고 했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최근 국내에서 열린 후일 조인식에서 기자들을 만난 박성현은 "올해 메이저 대회를 포함해 시즌 5승을 목표로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겨울 훈련을 잘 마무리해 샷 컨디션 등도 전체적으로 좋다고 전했다.

이번 태국 대회는 박성현이 동계 훈련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시즌 5승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향해 시동을 걸 기회다.

이번 대회엔 박성현 외에도 여러 한국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유소연(29)도 이 대회를 시즌 첫 대회로 삼았다. 지난 시즌 꾸준한 활약을 보이며 1승을 추가한 유소연은 지난 시즌보다 한 달 늦게 시즌을 연다.

개막전에서 예열을 마친 전인지(25)도 본격적으로 시즌을 시작한다.

양희영(30)은 이 대회에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나 우승한 강자다. 좋은 기억이 있는 무대에서 '정검다리 3승'에 도전한다.

개막전 우승자인 지은희(33)와 호주여자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고진영(24)을 비롯해 김세영(26), 김효주(24), 이미향(25), 최은정(29)도 일제히 나선다.

지난주 데뷔전을 치른 '핫식스' 이정은



(23)은 출전하지 않지만 '이정은'인 선배 이정은(31)이 출전한다. 태풍의 중심인 세계랭킹 1위 에리아 쭈타누간도 언니 모리아와 함께 출전한다. /연합뉴스

호주여자오픈 준우승 고진영, 세계랭킹 8위

LPGA 데뷔전 '톱10' 이정은은 20위 유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고진영(24·사진)이 처음으로 '한자릿수' 세계랭킹을 기록했다.

고진영은 18일자 세계랭킹에서 8위에 자리했다.

지난주 10위에서 두 계단 상승한 개인 최고 세계랭킹이다.

고진영은 17일까지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호주여자오픈에서 타이틀 방어는 이루지 못했으나 마지막 날 맹타에 힘입어 단독 2위에 올라 이번 시즌 처음 출전한 대회를 기분 좋게 마쳤다.

호주여자오픈을 통해 LPGA 투어에 공식 데뷔한 '핫식스' 이정은(23)은 세계랭킹 20위로 지난주와 같은 순위를 유지



했다. 이정은은 호주여자오픈에서 공동 10위에 오르며 데뷔전 '톱10'에 진입해 대형 신인의 이름값을 해냈다. 한편, 1~7위는 에리아 쭈타누간(태국), 박성현(26), 유소연(29), 박인비(31), 렉시 톰프슨(미국), 하타오카 나사(일본), 이민지(호주)의 순서로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다. /연합뉴스

이용섭, '광주FC 승격 염원' 시즌권 구매

광주, 시즌권 판매·프로축구 활성화 앞장

프로축구 광주FC의 구단주인 이용섭 광주시장이 2019 시즌권 구매와 함께 팀을 격려했다.

19일 광주FC에 따르면 광주는 전날 광주시청 3층 집견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정원주 대표이사, 기영욱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시즌 광주FC 시즌권 구매 및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구단주로서 2019시즌 승격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시즌권 판매 및 축구 관람 활성화를 위해 진행됐다.

이용섭 구단주는 "항상 낙담하게 지원해주지 못해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컸다. 2019 시즌권을 구매했으니 이제부터는 열혈 지지자로 경기장을 자주 찾겠다"며 "광주FC 축구연습구장이 완공됐고, 전용구장 건립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 시즌 승격을 이뤄낸다면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는 이용섭 구단주의 2019 시즌권 구매에 이어 광주지역 5개 구청을 방문해 판촉활동을 벌이는 등 개막을 앞두고 시즌권 판매 및 분위기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광주FC 관계자는 "개막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수막, 포스터, 배너, 영상 등 다양한 광고물과 5인조 걸그룹 EXID 초청 등 각종 이벤트를 기획 중"이라며 "올 시즌 승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는 오는 3월 10일 오후 1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아산 무궁화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2 2019 홈 개막전을 치른다. /차아정 기자



프로축구 광주FC의 구단주인 이용섭 광주시장(가운데)이 지난 18일 2019 시즌권을 구매하며 팀을 격려했다. 왼쪽부터 기영욱 광주FC 단장, 이용섭 구단주, 정원주 대표이사, 김경호 체육진흥과장. /광주FC 제공